

가톨릭마산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해외 원조 주일

2025년 1월 26일

제2654호

함양성당

since 1913. 4. 26.

본당주보 : 원죄 없으신 잉태

현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65



구 함양성당
(1930년대초 신축, 1970년대초 폐쇄)



구 함양성당
(혼배미사, 1964년)



구 함양성당
(마산교구장 김수환 스테파노 주교님 방문 환영기념, 1966.6.19.)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느헤 8,2-4,5-6,8-10
- 화 답 송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 제 2 독 서 1코린 12,12-30〈또는 12,12-14,27〉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 복 음 루카 1,1-4; 4,14-21
- 영 성 체 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정병진 요셉 신부
양덕동 보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느님의 말씀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이자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느님 말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뭘 해야 할 수가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하느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점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저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느님께서 뜻하는 바를 완수하고자 마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썩이 돌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다”(이사 55,10-11).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요한 복음서 1장에서 말하듯 ‘로고스’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 말씀 자체이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느님 말씀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에즈라가 백성들에게 하느님 말씀이 담긴 율법서를 읽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즈라 사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읽고 설명해주는 것처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이사야 예언서를 읽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즈라처럼 하느님 말씀에 대해 번역해주거나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과 설명을 해야 했던 에즈라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느님 말씀 자체이신 분이므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미사 중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맛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으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성체성사를 통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 나갑니다. 또한 오늘 제2독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머리에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머리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듯, 머리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역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 찬미 예수님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어린 시절 밀가루 자루에 성조기와 태극기와 더불어 두 손이 악수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원조받았다는 표식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어려워진 우리나라에 미국 가톨릭 교회가 밀가루와 우유를 비롯한 원조 물품들을 보내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밀가루 신자’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전쟁 후 이러한 외국의 도움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지구상의 인구를 100명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수치가 나온다는 책을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1억 명가량입니다만, 당시 인구 63억이었을 때인 2000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면, 52명이 여자이고 48명이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이 어른들입니다. 그 가운데 7명이 노인들입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명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이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이며, 14명은 문맹입니다. 20명이 영양실조이고, 1명이 굶어 죽기 직전이고, 15명이 비만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세계 상위 7%에,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상위 1%에, 컴퓨터를 가진 이들은 상위 2%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 가운데 15% 미만에 속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를 것입니다.

도움을 받던 우리가 이제 다른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루카 19,26).

이러한 세상을 바꾸려면 서로서로 많이 도와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끊임없이 서로 나누라고 합니다.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지며,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기를(루카 3,5 참조) 바랐던 세례자 요한이 외칩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 예수님도 나눔을 강조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루카 18,22).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 사람들에게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된 나라,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마태 25,34,46 참조).

우리가 굶주린 이들,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는 일은 바로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희망이 이루어지려면 악의 세력인 질병과 굶주림과 소외를 우리 가운데서 없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마태 12,28). 예수님께서서는 가난과 질병과 소외를 악의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1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안식일일지라도 치유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이 바로 악의 세력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열여덟 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루카 13,16)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가난을 몰아내고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자가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물은 바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수녀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가난한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도 없고, 구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도 해외의 어려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고 도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형편이 되는 만큼 도울 뿐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2010년에 설립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1975년에 시작된 ‘인성회’를 이어받은 법인으로서 2025년 올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50여 년 동안 꾸준히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원손 모르게 베푼 오른손의 선행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1월 26일 해외 원조 주일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조규만 주교



일본 나가사키 순교 신앙의 순례길을 걷다

김법곤 요한보스코 /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지난 12월, 교구 성경교육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26명이 일본의 천주교 역사지인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 일본 선교의 씨앗은 1549년 8월 15일 예수회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그 동료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1873년 메이지 정부가 그리스도교 금지를 폐지하기까지 324년간을 일본 ‘기리시탄(가톨릭 신자)’사라 한다. 특히 1614년 에도 막부가 금교령을 선포한 이후 259년간은 혹독한 박해 시대였다. 순례단은 박해 시대에 갇힌 고문과 고통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기리시탄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운젠, 시마바라 성당,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의 배경지인 소토메, 우라카미, 니시사카 26성인 순교지, 일본 신자 재발견 오우라 천주당, 나가사키 평화공원, 나가이 다카시의 여기당, 하비에르 성인의 발

자취의 히라도, 이키즈키 섬 등을 순례하였다. 무엇보다도 12월 3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에 일본 첫 26성인의 순교지 바로 옆에 있는 순교자 기념성당인 성 필리피 성당에서 온 마음으로 미사를 드렸던 것이 가슴 속에 깊이 남는다. 순례 여정마다 깊은 감동과 울림은 가슴 아픈 눈물과 함께 감동과 큰 은총의 시간이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묵시 7,17)

시마바라 반도 운젠의 순교자들, 운젠은 에도 막부의 천주교 금교령으로 많은 신자들이 배교를 강요받았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은 신자들이 끌려온 장소이다. 배교이나? 죽음이나? 끝까지 배교를 거부한 사람은 발가 벗겨져 묶인 채 끓은 유황물 속에 빠뜨려 죽이거나 심한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뜨거운 온천물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기에 운젠 지옥이라 불린다. 특히 이곳에서 순교한 우치보리 복자와 그의 아들을 시마바라의 순교자 기념 성당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성당 입구에는 그의 아들이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남기고 잘린 채 두 손을 하늘 향해 뻗고 있는 모습은 당시 받은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죽는 순간까지 비록 몸은 죽어도 영혼을 해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을 굳게 믿고 주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 사랑이 죽음보다 강함이 약 500년이 지난 지금 그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순교의 무대, 니시사카 26성인 순교지, 일본 최초의 박해 사건은 교토, 오사카 등에서 끌어와 1597년 2월 5일 나가사키시 니시사카 언덕에서 26성인이 순교한 사건으로, 이곳은 일본에서 전대사가 가능한 장소이다. 26성인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도 있었고 3명의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에 양쪽 귀는 잘리고, 마차에 3명씩 태워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한 달을 걸어 이곳에 와서 순교하였다. 남자 걸음으로 세 발 간격으로 이름을 새긴 십자가를 세우고는 순교자들의 다리를 묶었다. 12살 소년의 “내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묶어 주시오.”라는 말에 정녕 나는 내 일상 안에서의 십자가를 이 아이처럼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게 하였다. 이 소년은 “천국에서 만나자. 주님을 찬미하라”는 말을 남겼다.

긴 세월 동안 기리시탄들이 감시와 밀고, 후미에[성화상 밝기] 속에서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켰다. 한 명의 사제도 없는 상황에서 모진 박해를 견디며 오로지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7대에 걸쳐 신앙을 지켜왔다. 하느님께서서는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된다. 악의 세력은 십자가 위에서도 유혹할 수 있으니 늘 겸손되이 살아야겠다. 이번 순례길에 은총으로 친히 동행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도움주시고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전주 전동성당에 갔습니다

이월춘 프란치스코 시인 / 가톨릭문인회

바빠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아서, 비교적 늦게 영세를 받고 신자가 된 탓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신실치 못해서 냉담 중인 제 자신을 꾸짖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유아 영세를 받았고, 지금도 성실하게 하느님의 품에서 살고 있으니, 곧 저도 그럴 것이라 스스로 다독입니다만, 우리 마산교구가톨릭문인회에서 주최하는 성지순례나 피정에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금은 은퇴하신 허 신부님 말씀처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곧 흐트러진 마음을 회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계획에도 없었던 전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품격 있는 미식 도시로 알려진 전주는 육회비빔밥이나 막걸리 등이 유명하지만, 한옥마을 입구에 있는 전동성당을 빼놓을 수 없지요. 먼저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한옥마을 입구 바로 오른쪽에 전라도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전동성당 殿洞聖堂’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 두 사람은 제사를 우상숭배로 선언한 교황청의 입장에 따라 윤지충 모친의 장례식을 천주교식으로 치르면서 유교식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전주성 밖 전동성당 자리에서 참형을 당했습니다(신해박해). 순교자들의 피 묻은 돌 위에 세워진 성지, 저는 오래전에 서산 해미읍성 회화나무를 참배하면서 시를 한 편 남긴 적 있는데, 다시 한 번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의 동상 앞에서 잠시 묵상기도를 하였습니다. 윤지충과 권상연의 피가 묻은 돌 위에 세워진 전동성당, 순교자들의 피가 스며든 돌을 사용하여 그들의 희생을 딛고 일어난 성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이 참형을 당한 날로부터 100년이 지난 1891년, 프랑스인 보두네 Baudounet 신부가 이 땅을 사들여 성당을 지었고, 성당의 설계는 서울 명동성당을 완공한 경험이 있는 프와넬 Poisnel 신부가 맡았는데, 당시 전주성을 허물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주성에서 나온 흙으로 벽돌을 굽고, 성벽에서 나온 돌로 주춧돌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동성당 입구와 마당에는 평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언짢았으나 생각을 달리했지요. 순교자들이나 성당을 세운 분들이나, 이곳에서 고통의 역사를 느끼기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되찾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당을 나와 길 건너 골목에 있는 고풍스러운 찻집에서, 숙연한 마음으로 황차를 마시며 양갱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막걸리 골목으로 갈 예정이라 서둘러 예약해 둔 숙소로 향했지만, 그래도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던 까닭은 이 땅의 아픈 역사 때문이겠지요.



기억할 선종 사제
차기병(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1988년 2월 2일

지구장 본당 방문

일사: 2월 5일(수)
본당: 망경동
일사: 2월 6일(목)
본당: 신안동, 옥봉동

교구/본당

교리교사 동계피정

일사: 2월 1일(토)~2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재무평의회

일사: 2월 4일(화) 10:00
장소: 마산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레지아 평의회

일사: 2월 2일(주일) 14:00
장소: 마산교구청

M.E 월례회

일사: 2월 3일(월) 20:00
장소: 마산교구청

군중후원회 총회

일사: 2월 8일(토)
장소: 마산교구청

가톨릭여성회관 이주배경청소년 상담안내

대상: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년, 외국인가정청소년, 탈북청소년)

시간: 매주 월요일(협의 가능)

장소: 가톨릭여성회관(마산역 앞)

문의: 055-255-5080 womencenter@hanmail.net

기 타

마산성혈 C.P.E(임상사목교육)2기 교육생모집

대상: 자신과 타인의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분
기간: 2월 13일~5월 29일(09:30~17:00) 매주(목) 16주간
장소: 마산교구 가톨릭문화원(일반병원사목실)
접수: 2월 2일(주일) 최대 8명
문의: 010-9342-0619, kmrsk@naver.com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2월 14일(금)~15일(토)/3월 8일(토)~9일(일)
3박4일: 2월 26일(수)~31일(토)/3월 27일(목)~30(일)
4박5일: 2월 17일(월)~21일(금)(성직자/일반)
8박9일: 3월 13일(목)~21일(금)/4월 23일(수)~5월 1일(목)
40일: 4월 21일(월)~5월 30일(금)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한티 가는 길(도보순례)

일사: 3월 1일~3일, 4월 10일~12일, 5월 22일~24일,
6월 19일~21일, 11:00 입실, 17:00 마침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여성센터
강사: 류 에프렘 수사
참가비: 2박3일, 25만원
문의: 010-6791-0071(문자)

성혈영성의집 별관 '침자리' 이용 안내

단체: 최대 13명 1일 숙박 20만원
개인피장: 최소 2인 이상 1일 숙박 3만
식사 개별 취사
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11
문의: 010-8025-9759, 그리스도의성혈함송수녀회



마산교구 법원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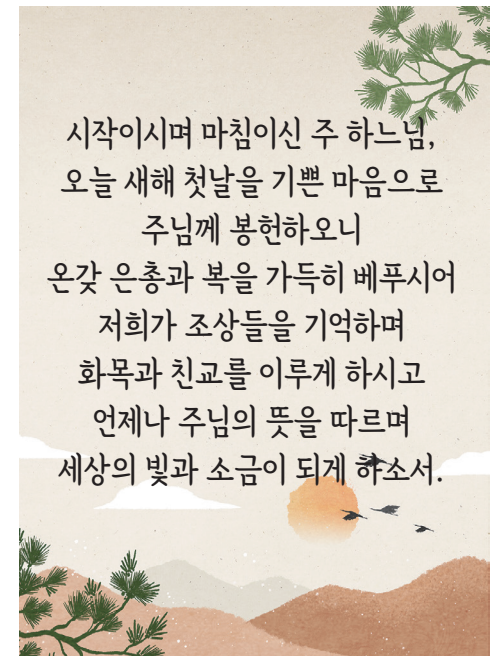
혼인과 관련된 일들로 성사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십시오.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1월 31일 마감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사: 매주 (화) 14:00~20:00
장소: 가톨릭문화원(구 교구청) 2층
내용: 정서적 고통, 인간관계, 면담고해성사
상담자: 강운철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제	문 의
교 구	설연휴로 기도회는 쉽니다.					
청 년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www.cttour.org

4/1~4/12	산티아고 도보	499만원
4/5~4/16	히년 이탈리아	435만원
4/21~5/2	동부유럽발칸반도	510만원
4/24~5/5	유럽 성모발현지	555만원

대성익전 경남장묘건설링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수목장·평장묘 터 알선
010-4848-9944
마산회원구 와성남 18길 2, 1층(희생동)
김 중 운(클레멘스)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4월 22일 성모님발현지 4국 12일
5월 9일 그리스, 터키 12일
2월 18일, 3월 4일, 4월 1일, 4월 15일
제주도(추자도) 3일
michaeltour.co.kr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마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산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설 립 일: 1969년 3월 13일

설립목적: 각 본당 사목협의회와 교구 단위 모든 단체가 교구장의 사목방침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여 평신도사도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복음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설립되어 되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마산평협')는 1966년 마산교구가 설정되고 3년이 지난 1969년 3월 13일 설립되어 올해로 5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말병 아우구스티노 회장님을 포함하여 열일곱 분의 회장님이 27대를 역임하시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쳐 2024년도 2월부터 제28대 마산평협의 구성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마산평협 조직은 회장 1명, 지구회장단 4명, 부회장단 5명(남 4, 여 1), 기획사무처 3명, 간사 1명, 분과위원장 5명과 차장 5명(복음화, 교육, 생태환경, 사회복지, 문화홍보), 감사 2명 총 25명과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마산평협 직속기구로 「마산교구 교회사 연구회」라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교구내 신앙유적 탐사 및 발굴과 교구내 성지순례를 통한 개인의 신앙고취와 성지 안내 봉사자 양성 사업의 초석을 목표로 출범합니다.

각 분과별 2025년도 활동 계획으로

- 1) **복음화분과**에서는 가정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길 조성입니다. 24년도 도보순례길 답사의 연장으로 올해는 답사길을 잘 다듬어 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5월에는 명례성지에서 새 교구장님과 복자 신석복 마르코 유배길 도보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2) **교육분과**에서는 '교구의 은인을 찾아서' 작년에 이어서 3번째 시리즈로 교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과 영성을 배워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 3) **생태환경분과**에서는 지난 두 해에 걸쳐 실시한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의 실천으로 해양 환경 살리기 일환으로 수산자원 방류사업을 지역민들과 명서동 유치원생과 교구민 등과 함께 할 것을 계획중이며 참가 인원을 이천여 명으로 예상하니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4) **사회복지분과**는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기를 청하며, 그리고 특정지역의 어려움을 겪는 이를 도울 자연환경보호를 통한 수익물품 전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5) **홍보분과**에서 2025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마산평협 홈페이지 관리와 평협에서 시행한 사업, 행사들의 홍보를 위한 유튜브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각 분과가 다양성을 갖고 활동함으로써 모든 교구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신앙의 도구로 그 역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제 곧 새 교구장님께서 오시면 목자의 길을 잘 받들어 일치로 우리 마산 교구민들의 단합과 희망의 희년을 만들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발자국을 지구에 남겼을까?

윤체영 마리아나 / 환경교육사

우리는 지구에 얼마나 많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을까? 우리의 일상이 지구의 미래를 얼마나 바꾸고 있을까?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계절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날씨가 이상해졌다. 너무 덥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 말이 일상이 되었다.

정말 그럴까? 지난 여름은 우리나라 113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다.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비 오는 날은 줄었고,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과 심각한 산불로 인한 피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5년, UN 파리기후협약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억제하고, 1.5°C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이미 1.6°C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개인의 작은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는 나무를 심거나 다른 방법으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까운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거나, 장바구니를 챙기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기후위기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생활방식과 소비를 돌아봐야 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2025년에는 우리가 남긴 탄소 발자국을 돌아보고, 지금부터 “탄소 감축”을 시작해 보자.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발자국을 줄이는 행동이 지구와 우리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되는 사이트 및 앱

1. 탄소발자국 계산기 <https://www.kcen.kr/tanso/intro.green>
2.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https://cpoint.or.kr/>
3.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https://www.cpoint.or.kr/netzero/main.do>
4.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탄소제로” 검색 - 실천 포인트로 지역상품권으로 교환가능



탄소제로